印, 라트나기리 유적 1.4m 불두 발견 '눈길'

1961년 조사 후 최근 재발굴
새로운 불교유물들 대거 출토
오대샤 발굴 최대 불두 꼽혀
중국 제작 청자 발견돼 관심

박영빈 객원기자


유적지에서 발굴된 1.4m 높이의 석조불두. 사진출처=더 힌두

인도 동부의 오디샤주에 소재한 불교유적지 라트나기리(Ratna gir)에서 새로운 유적과 유물들이 대거 발견돼 화제다. 인도 고고학 조사국(ASI)은 1961년 마지막으로 발굴조사를 진행한 라트나기리 유적군을 재발굴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원 유적군과 불상, 불탑 등이 대거 발견됐다고 전했다. 이 놀라운 소식을 2월 22일 인도의 '더 힌두'가 특별 보도했다.

현지언어로 '보석의 언덕'을 뜻하는 라트나기리는 자즈푸르 지구의 언덕에 위치하고 있다. 특히 이곳은 반경 10Km 이내에 또 다른 불교사원군인 우다야기리, 랄랏기리와 함께 불교유적의 삼각지로 불리고 있다.

라트나기리는 지난 60년대에 실시한 조사 당시 발견된 비문들에서 '길상한 라트나기리 대사원과 성스러운 비구승가'라는 명문이 나와 이곳이 불교사원임이 밝혀졌다. 학자들은 5세기부터 13세기까지 번성했으며 특히 밀교의 중심지였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원들은 이슬람의 침공으로 13세기에 황폐화 됐으나 이 지역의 불교 활동은 16세기까지 계속된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다.

2024년 12월 1일부터 시작된 재발굴 조사는 기존에 발굴된 유적지의 남쪽 언덕에서 시작됐다. 현재 발굴된 최대 성과로는 1.4m 높이의 불두로 현재까지 오디샤에서 발굴된 불두 가운데 최대 크기로 꼽힌다. 특히 이 불두는 발굴 작업이 개시되던 당시 이곳에서 법회를 봉행하고 있던 티베트 스님들의 제보로 찾은 것으로 전한다. 1500명의 스님들이 모일 법회장을 정비하던 중 지표에서 불두의 나발이 발견되면서 고고학자들에게 제보한 것이다.

불두를 발굴한 수석고고학자 가르나야크는 "당시 사람들이 원시적인 도구로 이렇게 섬세하고 복잡한 조각을 한 것에 대해 경탄을 금치 못했다. 이 불두 외에도 바로 근처에서 다른 불두 2점을 더 발견했다"고 전했다.

약 3개월에 달하는 발굴 과정에서 발굴팀은 수 백 개의 석제 봉헌탑과 불상을 봉안한 것으로 보이는 거대한 사자좌를 비롯해 보생여래, 아촉여래, 마리지천, 타라보살과 같은 밀교의 불상들을 발굴했다. 발굴현장을 지휘 중인 보조 감독관 프라단은 현재 유적지의 발굴 작업은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프라단은 "구조물을 완전히 해독하고 그 목적을 파악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일부 유구들은 건물을 벽들이 온전하지만 그 모든 구조물이 동시에 지어진 것이 아니다"라며 분석 작업에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또한 "유구와 불상들, 불단, 봉헌탑들의 잔해들을 통해 어느 시점에서 사원에 대한 파괴 행위가 있었을 가능성 시사된다"고 설명했다.

학자들은 불교유물 외에도 여러 토기와 도자편들을 대거 발굴했다. 이 가운데는 중국에서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청자편도 있어, 학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발굴작업은 오는 3월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여름이 지나고 다시금 재개된다.

대만 자제공덕회, 룸비니서 여성 무료 진료소 운영

취약여성 건강 관리 장벽 해소
장기적인 의료 지원 계획 예정


여성 건강 무료 진료소에서 진료를 기다리는 네팔 · 인도 여성들. 사진출처=자제공덕회 홈페이지

대만 불교계 비정부기구 자제공덕회 의료팀이 네팔 룸비니에 부인과 무료 진료소를 열어 주민들의 호평을 받았다. 2월 19일 불교전문매체 '부디스트도어 글로벌'은 자제공덕회 의료팀의 여성 건강 무료 진료소 운영 소식을 전했다.

지난해 12월 12~13일 이틀간 운영된 여성 건강 무료 진료소를 통해 총 250명의 여성이 진료받았으며, 약 200개의 약물이 처방되었고 5명의 여성이 추가 치료 진단을 받았다. 9명의 여성은 기저 건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초음파 검사를 진행했다.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은 이 과정에서 단순한 치료를 넘어 지역 사회와 연대감을 형성하며 여성들이 건강을 중요하게 여길 수 있도록 독려했다. 이는 의료 접근성이 낮고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여성 건강 관리가 소홀히 여겨지는 지역에서 중요한 변화를 이끈 것으로 평가된다.

무료 클리닉이 열린 첫날, 룸비니 인근의 여성들은 이른 아침부터 긴 줄을 서며 의료 상담을 받기 위해 기다렸다. 오전 8시부터 진행된 진료에서 자원봉사자들은 환자 등록, 분류 평가, 검사 등의 절차를 체계적으로 운영하며 원활한 의료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자제공덕회 의료팀 관계자는 "매우 보수적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회에서 많은 여성들이 낙인과 여성 의사에 대한 접근 제한으로 인해 부인과 문제를 묵묵히 견디고 있다"며 "절실히 필요한 치료를 제공하고 여성들이 자신의 복지를 우선시하도록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클리닉은 네팔과 인도의 취약 지역 사회에 의료 지원과 인도적 구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부처님의 고향으로 돌아가기' 프로젝트 일환으로 마련됐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네팔의 자원봉사자들이 협력하여 진행했다. 네팔과 인도 국경 지역에서는 의료 인프라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문화적 장벽으로 인해 여성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자제공덕회는 여성 건강을 중심으로 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여성들이 자신의 건강을 우선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진료를 받은 비나 쿠마리 하리잔(23)은 "오랜 기간 복통을 참아왔지만 지역 내 여성 의사 부족과 의료 접근성 문제로 인해 적절한 상담을 받을 기회가 없었다"면서 "이번 클리닉을 통해 여성 의사와 직접 상담할 수 있었고,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어 큰 안도감을 느꼈다"고 전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호쿠리쿠 신칸센 연장에 교토불교회 반발

"자연 · 문화유산 큰 피해 예상"
'천년의 우행' 강력 비판 나서


교토부 지사에게 신칸센 연장에 반대하는 성명을 전하고 있는 교토불교회 임원들. 사진출처=아사히신문

일본의 고도인 교토, 교토부에 소재한 1100개소의 사찰들이 참가하는 교토불교회가 호쿠리쿠 신칸센의 연장 계획안을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2월 21일 일본의 '아사히 신문', '산케이 신문' 등 주요 언론은 교토불교회의 행보에 대해 집중 보도했다.

호쿠리쿠 신칸센은 1998년 처음 개통되어 현재 군마현의 타카사키역을 지검으로 후쿠이현의 츠루가역까지 전구간 470km로 동일본과 서일본을 연결하는 주요 노선이다. 2016년 현 종점인 츠루가 역에서 오사카까지 연장 계획이 발표됐고 연장 구간에 대해서는 총 5가지 구간안이 제안되었으나 2017년 오마바역을 경유하는 안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환경평가와 공사 안들이 속속들이 발표되면서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현재 최종 선정된 오마바 경유루트에 대해 반대하는 교토불교회 측은 "2km에 달하는 터널을 뚫어야 하는 등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공사가 상당수"라며 "지하수위의 저하에 따른 싱크홀 문제, 수맥 단절에 따른 공공수원의 고갈, 지반침하 등 교토에 소재한 수많은 문화유산과 세계유산등에 큰 피해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교토불교회는 지난 12월 공식적으로 교토부 지사와 시장에게 제출한 재고요망서에 "천년의 우행(愚行)이 아닐 수 없으며, 교토불교회는 단호한 결의로 계획안의 백지철회를 요망한다"는 표현을 사용하면서까지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니시와키 타카토시 교토부 지사는 "불교계의 의견을 진지하게 수용하여 적절하게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교토불교회는 지난 재고요망서를 시작으로 호쿠리쿠 신칸센 연장안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에 나섰다. 서명은 1년간 50만명을 목표로 진행되며 불교회의 스님들이 가두에서 서명운동을 진행하거나, 회에 동참하는 사찰에서 받을 계획이다.

박영빈 객원기자

남미 최대 불교사원, 브라질서 영향력 확대

대만 불광산 종단 여래사
종교 · 문화 허브 자리매김


브라질 불광산여래사의 명상 수련회. 사진출처=부디스트도어 글로벌

브라질 상파울루 외곽에 자리 잡은 남미 최대 불교사원 '불광산여래사(佛光山如來寺)'가 종교적 영향력을 확대하며 주요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난 2월 19일 미국 언론 '더 월드'는 불광산여래사의 브라질 내 종교적 영향력 확대에 대해 보도했다.

상파울루 인근 코티아(Cotia)에 위치한 여래사는 대만의 '불광산(佛光山)'이 1992년에 개산한 남미 최초의 불교 사찰이다. 2003년 대대적인 확장 공사를 거쳐 약 3000평 규모의 도량으로 정비했으며 빼어난 경관으로 코티아의 대표 명소가 되었다. 현재 여래사는 매달 1만 5000명 이상의 방문객이 찾는 명소로 성장했다.

여래사 주지 요우 먀오 스님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마음의 평화를 찾고 미소를 지으며 치유하는 공간으로 여긴다"면서 "문화 행사, 교육 프로그램, 사회봉사 활동 등을 통해 지역 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브라질에는 약 25만명의 재가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인구 2억 2000만명이 넘는 브라질에서 비교적 적은 수치지만, 불교의 실질적 영향력은 훨씬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민재 객원기자

최고의 연등만을 고집해 온 대광불교

대광불교는 연등전문 기업입니다. 대광불교만의 독특한 디자인과 숙련된 노하우로 각종 연등을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항상 등불을 밝히는 마음가짐으로 등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광불교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자리길 113 | E-mail : hskhsg@naver.com | 010-9446-1862 | 010-2788-7270 | 031)768-7270 | 031)768-7271